성경해석학

제 1 강 성경해석학 서론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역자 서문

삼천년기 사역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전세계를 향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삼천년기 사역은 제이니 필로우(Janie Pillow)와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에 의해 1997 년에 시작되었다. 삼천년기 사역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 개 언어(세계 인구의 총 42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인도네시아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암하라어, 텔루구어 등)은 삼천년기 사역자의 감수 아래 각 언어의 자원자들이 번역하여 올린 것이다.

본 강좌는 **성경해석학**으로 총 11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강은 **성경해석학의 서론**으로 몇 가지 기본 용어를 설명하고, 과학적 해석학과 신앙적 해석학이 함께 가야함을 강조하고, 각 해석학의 성경적인 예와 역사상의 예와 해석 과정(준비, 연구, 적용)에서의 우선 사항을 다룬다. 제 2 강은 **해석을 위한 준비**로 성경을 영감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석의와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개인 체험이 인간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제 3 강은 **성경 연구**라는 주제를 다루며 원래의 의미를 정의하고, 원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로 저자와 독자와 본문 문제를 다루고, 교회사를 통틀어 원래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천명한다. 제 4 강은 **의미에 대한 접근법들**로 해석의 객체인 성경 자체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의미를 찾으려는 객관적 접근이나 해석의 주체인 독자의 주관적 판단을 우선시하며 의미를 찾으려는 주관적 접근의 단점을 지적하고, 독자가 권위있는 성경 본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찾는 대화적 접근, 특히 권위-대화적 접근을 바른 해석 방법으로 설명한다. 제 5 강은 **의미의 복합성**을 주제로 삼고 성경에서 각 단락의 의미는 하나이지만 매우 복합적이므로 문자적 의미를 기초로 삼고 성경에서 다각도로 제시하는 온전한 참뜻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제 6 강은 **의미 찾기**로 원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저자와 독자와 본문의 상호 작용을 다루고 성경이 제시하는 요약들을 살펴 복합적인 온전한 의미에 이르는 것을 설명한다. 제 7 강은 **성경의 적용**으로 그 때 거기의 말씀이 이 때 여기의 말씀으로 적실성 있게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며 적용의 필요성,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래 의미와 오늘의 독자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난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발전 등을 설명한다. 제 8 강은 **현대 적용과 구약 시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6 가지 언약을 따라

구약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를 따라 구약의 신앙이 발전한 것을 탐구하고 이 발전이 성경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제 9 강은 **현대 적용과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성경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새 언약 시대의 개시, 지속, 및 절정에 비추어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제 10 강은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을 다루며 성경의 모든 단락이 문화적이고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성경의 다양한 문화적 차원이 현대 세계에 성경을 적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제 11 강은 **개인적인 현대 적용**으로 성경의 원독자와 현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 차이에 중점을 두며 성경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도하는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인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다양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경의 다양한 교훈을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이 **성경해석학** 강좌를 통하여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원래 의미를 찾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양질의 원강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라고 번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 수준 높은 신학 강좌들의 원본 동영상이 한국어 더빙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편집, 더빙 등 한국어와 관련된 사역에 자원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역자의 이메일 hesedlee@gmail.com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이번 **성경해석학** 강좌의 번역은 역자의 사랑하는 딸 이유선(Debby YouSun Lee-Vakil)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유선은 남편 Ankur Vijay Lee-Vakil, 두 아들 Bex(주영), Kit(주현)와 함께 북가주(Nothern California) Union City 에서 살면서 PCA 소속 Risen Church 를 섬기고 있다. 효녀 유선이에게 감사한다.

성경해석학

제 1 강 성경해석학 서론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용어(Terminology) 1

A. 성경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2

B. 해석의 과정(Hermeneutical Processes) 3

1. 준비(Preparation) 3

2. 연구(Investigation) 4

3. 적용(Application) 4

III. 과학적 해석학(Scientific Hermeneutics) 5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5

B. 예들(Examples) 6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9

1. 준비(Preparation) 9

2. 연구(Investigation) 10

3. 적용(Application) 10

IV. 신앙적 해석학(Devotional Hermeneutics) 12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12

B. 예들(Examples) 13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17

1. 준비(Preparation) 17

2. 연구(Investigation) 19

3. 적용(Application) 20

V. 결론(Conclusion) 22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1 강 성경해석학 서론(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이 자주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 그들은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조금 돕고 나서 스스로 요리를 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한두 번 흉내를 내보고 아버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보편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행하게도, 어른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조차도 자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우리 중 일부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고 바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가정한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실제보다 훨씬 더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어떤 것이 수반되는지 주의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강의는 **성경해석학**(*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이란 강좌의 첫 번째 강의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탐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성경해석학 서론"이다. 이 강의는 건전하고 학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기본 틀을 소개할 것이다.

"성경해석학 서론"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학구적인 해석을 특징짓는 "과학적" 해석학을 탐구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들과 결부시켜 "신앙적" 해석학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살펴보자.

II. 용어(TERMINOLOGY)

어느 토론에서든 핵심 용어들을 오해하는 것은 혼동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해석학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해석의 세 가지 과정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해석학의 개념을 살펴보자.

A. 성경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해석학"이란 단어는 신학 및 성경 연구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해석학"이란 단어가 신화에서 신들의 사자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를 포함한 헬라어 단어군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해석학"이란 단어 자체는 "해석하다" 혹을 "설명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헤르메뉴오]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을 언급할 때, 광의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메시지 혹은 정보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염두에 둔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1768-1834)는 자주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819 년에 그는 모든 문학의 이해를 위한 통일된 이론, 곧 "일반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주제가 다를 때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해석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해석학이 공통적인 해석의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세기 말경에 이르러 해석의 과정이 많은 연구 분야의 중요한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선도적인 학자들은 일반 해석학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최근에는 해석학적 논의가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에 나타나고 있다. 해석학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심지어 물리학과 생물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유용하다. 이러한 확장이 일어난 것은 이런 분야들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그들의 학과가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강의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성경의 의미와 의의를 해석하는 학문, 곧 성경해석학에 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당신은 성경해석학에 스스로 관여했다. 성경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들은 커다란 가치가 있으므로, 이번 강의들은 우리 대부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비공식적인 해석학을 넘어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성경 해석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여러 문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글로도[Mike Glodo] 목사) 일반 해석학과 성경해석학을 구별해서 비교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준다. 성경이 일반 해석학과 공통적으로 갖는 개념을 들면, 동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품사란 무엇인가, 문법, 구문론 등은 무엇인가, 저자가 어떤 단어들을 썼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해석학에만 관련된 특수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다. 이로 인해 성경해석학 나름대로의 독특한 측면이 생긴다. 그것은 곧 성경의 모든 데이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을 말한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성경해석학이 의미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중요한 용어인 해석의 과정, 곧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따르는 주요 과정을 살펴보자.

B. 해석의 과정(HERMENEUTICAL PROCESSES)

이 강좌를 통해 우리는 해석의 세 가지 주요 과정인 준비, 연구, 그리고 적용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 과정은 성경 해석에 매우 본질적이므로 이 강좌의 매 강의는 이 세 범주 중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럼 먼저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준비(Preparation)

준비라는 해석의 과정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준비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백지 상태로 성경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개념, 행위, 및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성경을 접근한다. 실감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향받은 많은 것이 성경을 잘 다루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도 하지만, 영향받은 다른 것들은 건전한 성경 해석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강의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브래머[Stephen J. Bramer] 박사)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데 우리가 할 혹은 해야만 할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고된 과업일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청하며 성경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가 탐구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도구들을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자료를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자유를 드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 .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하고, 그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라는 해석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연구라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연구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다.

2. 연구(Investigation)

본질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현 세상을 뒤로 하고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한 바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의도한 원래의 의미, 성경 문헌 자체,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청중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원래의 의미를 다룰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문 성경을 탐구한다면,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본문의 언어적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현대 번역본에 의존할지라도, 그 번역본은 용어와 문법적 표현이 갖는 고대 의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이러한 여러 면에서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는 항상 성경 본문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의 과정에 매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석의 과정은 준비와 연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적용이란 과정도 수반한다.

3. 적용(Application)

간단히 말하면, 적용이란 원래의 의미를 현대의 청중에게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일단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수천 년을 거쳐 우리의 현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된다. 적용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한다.

해석의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의 한 단락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우리의 사고에 적용한다. 물론, 성경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위선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러므로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 강의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준비, 연구, 그리고 적용이 매우 상호 의존적인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한 과정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과정들에서도 잘 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모두가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의 하나나 둘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비와 연구와 적용의 상호 의존성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우리의 기술을 연마할 것을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성경해석학의 서론격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요 주제인 과학적 해석학, 곧 성경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어떻게 성경의 해석을 점점 더 과학적인 훈련처럼 접근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I. 과학적 해석학(SCIENTIFIC HERMENEUTICS)

성경해석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과학적 특색을 지녀왔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많은 학과목에서처럼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이렇게 발전해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고대 세계의 다른 문헌들처럼 다루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룰 때, 학자들은 자주 고고학, 역사,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언어학과 같은 과학적인 학과로부터 정보를 얻어 왔다. 이런 노력과 다른 과학적 노력에서처럼,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적인, 또는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을 성경에 적용해 왔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 접근법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해석학의 발전을 예시하는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접근법이 어떻게 해석의 과정을 위해 정해진 우선 사항을 설정하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지성이 없었다거나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들의 정교한 건축상의 업적들, 광범위한 해상 여행, 혁신적인 농업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문화적 업적들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자들과 매우 흡사하게 사실들을 다루었고 세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 저자들 스스로가 자주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다른 성경 부분을 해석하였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시간상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단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예시해 보기로 한다. 롬 4:3-5 에서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 **(롬 4:3-5 개역개정)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 15:6 을 인용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구약의 구절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루었는지 주목하라. 로마서 4 장 4 절과 5 절에서 바울은 "여기다" 혹은 "간주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의 의미를 주의 깊게 분석했다. 그는 그의 헬라어 지식을 통해 "삯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그들의 행위가 아니라—그들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창세기 15 장 6 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의를 부여받은 것을 암시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 깊게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며 창세기 15 장을 다루었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한 가지 예가 예시하듯이 성경 저자들은 자주 이러한 종류의 세심한 성경 해석을 제시하였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은 과학적 성경해석학이 성경 자체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음을 제시한다.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종류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B. 예들(EXAMPLES)

교부 시대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의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주후 185-254)이다.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오리겐은 과학적 해석을 훨씬 더 뛰어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전념했다. 예를 들면, 오리겐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의 하나는 50 권이 넘는 총 6 천 페이지 분량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헥사플라를 만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오리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여러

헬라어 역본들을 단어별로 비교했다.[1] 이 작품은 수 세기 후에 분실되었지만 여전히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과학적인 성경 해석의 주목할 만한 예를 보여준다.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른 두드러진 예들은 오리겐 시대 이후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히포의 어거스틴(주후 354-430)은 성경에 대한 주의 깊고, 자주 고심하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계속 집중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주후 1225-1274 경)의 시대까지 서구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주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의 영향을 반영했다. 아퀴나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엄격하게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성경에 적용했다.

불행하게도, 교회사에 있어서 이 시대까지는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과 다른 책들이 널리 이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소수 특권층만이 실제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교회의 권위자들이 어떻게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이해할 것인지를 통제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지배와는 별개로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의 초기 단계 중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다. 1204 년 제 4 차 십자군 원정에서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후 거기에 소장된 고전들과 성경의 사본들이 서구 세계로 옮겨졌다. 그런데 르네상스 학자들은 교회 교리라는 렌즈를 통해 이러한 고대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신, 그것의 문법과 고대 역사적 문맥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이런 문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1450 년경 사용되기 시작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도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네상스 시대의 연구는 널리 이용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에라스무스(1466-1536)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욱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인도했다.

16 세기의 종교개혁은 과학적 성경해석학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르네상스의 방침을 따르며 마틴 루터, 울리히 쯔빙글리, 존 칼빈과 같은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교리가 성경 해석을 지배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 대신 그들은 성경의 의미가 성경의 문법과 역사적 맥락의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역자 주: 헥사플라는 오리겐 당시에 통용되던 히브리어 본문과 현존하던 헬라어 역본들이 비교될 수 있는 6 개의 난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이었다. 둘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자역한 것이었다. 셋째 난은 아퀼라역을, 넷째 난은 심마쿠스역을, 다섯째 난은 70 인역 본문을 오리겐 자신이 개역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난은 세오도션역을 실었다. 다섯째 난에는 원래 그것이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가 더해졌거나 생략되었던 것을 표시하는 일련의 특별한 기호들이 있었다.

우리는 초기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강조를 "[쏠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잘 알려진 교리와 연결하였던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개신교인들은 성경이 논의할 여지없이 유일한 권위, 곧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해했다. 성경 권위의 지고성에 대한 이러한 헌신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만이 성경 자신을 유일하게 오류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초기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의 고대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세심하고 합리적인 문법 분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17-18 세기의 서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운동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진리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인 성경해석학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지질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다른 분야의 현대적인 과학자들처럼, 성경 학자들도 과학적 기준을 성경 연구에 주의 깊게 적용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방면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대 성경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주된 길을 따라왔다. 한편으로, 주요 교육 기관에서 대다수의 해석자들은 흔히 비평적 성경 연구라고 부르는 방향을 따라왔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비평적 성경 학자들은 "오직 성경"이란 전통적인 개신교 교리를 부인하고, 이성과 과학적 분석만을 진리 분별의 최고 표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비평주의적 해석자들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고대의 원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관점들을 반영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과학적인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 성경 연구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왔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두말할 것 없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색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엄격한 적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이 성경 자체의 교훈과 배치될 때,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들의 권위인 성경에 전심으로 복종한다. 이번 강의들을 통해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성경해석학 강좌는 복음주의의 길을 따른다.

(글렌 스코기[Glen Scorgie] 박사)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정한 권위는 동의를 이끌어낼 권리와 힘이고, 성경은 독특하게 기독교인의 삶에 권위로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 이에 대한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통찰이 성경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성경은 계시라고 불린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곳에 진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들어 있는 진리는 그 저작과 최종 형식에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원천들과 비길 것이 전혀 없을 정도의 신임성과 무오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독특한 신임성, 그러한 무오성, 그러한 실패의 불가능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파생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우리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해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나가게 하며 우리를 생명과 성숙의 길에 견고히 세워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과 몇 가지 역사적 예를 언급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곧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우선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대체로 전 세계의 현대 복음주의 성경 학자들은 과학적 해석학에 적극 헌신해 왔다. 이러한 헌신은 준비, 연구, 및 적용의 과정을 위한 어떤 우선 사항으로 이어졌다. 먼저 그들의 준비를 위한 전형적인 우선 사항을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1. 준비(Preparation)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시작할 때마다 준비는 불가피하다. 고등 교육 기관의 성경 해석자들은 다른 많은 학과목에서 발견되는 지적인 우선 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을 발전시켜 왔다.

당신이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려 하고 될 수 있는 한 잘 준비하길 원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럴 때 당신은 여러 생물학 교수들에게 "제 연구를 위하여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생물학적 사실들을 암기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라."고 말해 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복음주의 신학 기관의 교수들에게 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충고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라.", "성경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사실들을 배우라.", 그리고 "건전한 해석의 방법들을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성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의 성공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물론, 우리 자신이 사실적이고 방법론적인 이해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 관한 사실들을 배우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 해석에 필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전적으로 지적인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 해석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의 일부를 간과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준비를 위한 몇몇 우선 사항을 살폈으므로, 이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에 있어서 연구의 과정을 위한 몇 가지 우선 사항을 살필 것이다.

2. 연구(Investigation)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두 가지 방식인 석의(釋義)와 자의적(恣意的) 해석 [혹은 주입(注入) 해석]을 구별한다. 석의(exegesis)는 "~로부터 끌어내는" 혹은 "~로부터 유래한"이란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꺼내거나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의적 해석(eisegesis)은 "안으로 넣은" 혹은 "집어넣은"이란 의미를 갖는다. 자의적 해석은 의미를 본문 속으로 집어넣어 읽는 것을 뜻한다.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성경 해석자들은 자의적 해석을 피하려고 애를 쓴다. 그 대신 그들은 자의적이 아니라 석의적인 성경 이해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 해석 원리들을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연구는 성경의 사실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지적 준비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해당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나 의제가 아니라 실제 원래의 의미를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하게 고안된 해석의 방법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사용하며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탐구한다.

이 강좌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이 결코 성경의 원래 의미를 온전히 탐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와 연구라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해석학을 위한 몇몇 우선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적용이라는 과정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3. 적용(Application)

내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한 특이한 급우는 교수들이 강의하는 동안 자주 그들의 강의를 차단하곤 했다. 그 급우의 질문은 항상 동일했다. "교수님, 지금 하신 석의가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교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런데 교수들의 대답도 거의 예외없이 항상 동일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런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말고 실천신학 교수님들에게 하십시오."

이 경험이 일러주듯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해석은 성경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다. 기꺼해야 그것은 사실 중심의 현대적 적용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적용은 성경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믿도록 가르치는 여러 종류의 사실들을 우선적으로 확립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사실적 주장들이 참되다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적용도 분명히 큰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많은 중대한 방식들을 등한시한다.

> **(키너[Craig S. Keener] 박사) 성경 연구의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자동적으로 "내가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기 나의 논리적 결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연구를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럴 때 성경 연구는 우리 전인격을 동원하여 힘써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연습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랜 세월에 걸쳐 내가 해 온 많은 연구 중 강조해 왔던 분야들 중의 하나가 문화적 배경, 세계, 고대 세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정보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접할 수 없지만, 학자로서 나는 그런 정보를 내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성경 본문의 연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배경 자체에는 영적 생명력이 없었다. 내가 그것을 통해 지적 즐거움을 얻긴 했지만, 진정한 영적 생명력은 성경 본문에 있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것에 복종시키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에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만 오는 일이다.

지금까지 성경해석학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와 과학적 해석학의 오랜 전통을 살펴보았으므로, 우리는 이 강의의 세 번째 주요 주제를 살필 것이다. 과학적 해석은 어떻게 신앙적 해석학, 곧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IV. 신앙적 해석학(DEVOTIONAL HERMENEUTICS)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측면에서 일반 해석학과 비슷한 과학적 해석학을 채택했다. 그러나 신앙적 해석학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왔다. 딤후 3:6 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inspired). 좀 더 직역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진/불어넣어진(God-breathed)" 것이다.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성경 해석학을 일반 해석학과 구별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경건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슨[Dennis E. Johnson] 박사)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단지 인간 저자들의 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독특한 개성, 문체, 경험을 통해 영감하신 말씀을 다루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그것은 이 말씀을 영감하신 성령님이 신자인 우리들 안에 또한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한 성경을 우리 마음에 열어 주시기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전 논의와 병행되는 방식으로 신앙적 해석학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성경 해석이 성경적인 근원을 갖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적 해석학을 실행했던 성경 학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예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따르는 것이 해석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우선 사항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신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자.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성경 저자들이 자주 다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탐구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또한 신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비범하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암시했다.

성경 저자들이 해석의 이러한 측면을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지금은 한 구절만 예로 들 것이다. 히 4: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 **(히 4:12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히 4:12)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앞 구절들에서 일부 인용한 바 있는 시편 95 편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 그는 앞서 히 4:7 에서는 시편 95 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앞서 히 3:7 에서는 시편 95 편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말로 소개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의 신적 저작성을 인정한 후에 성경을 읽는 경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유의하라. 그는 성경 자체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경은 또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날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과학적 해석학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4 장 12 절에서 암시하는 바는 성경이 실제로 우리를 분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이 우리의 논의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매우 수준 높은 성경 학자이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는 다른 많은 신약 저자들을 능가하는 깊은 통찰력으로 구약 성경을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그의 높은 지적인 분석은 그를 신앙적 해석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지적인 해석은 그 자신이 매우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과학적 해석학과 신앙적 해석학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신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 과학적인 접근과 신앙적인 접근을 결합한 방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B. 예들(EXAMPLES)

성경에 대한 신앙적 해석은 교회 역사상 교부 시대에 특히 중요했다. 앞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세심하고 과학적인 성경학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리겐이 네오가이샤라의 그레고리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Letter of Origen to Gregory)에서 그레고리를 어떻게 격려했는지 들어보라.

> **네가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굳게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성독(聖讀 divine reading)에 전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라. 두드리고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리겐은 그레고리에게 "성독(聖讀 divine reading)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성독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후에 라틴어 Lectio Divina[렉치오 디비나]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신앙적 해석학의 전통이다.

오리겐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더 일찌기 유대인 구약 해석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작품 가운데 특히 잘 표현되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표면 아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천상의 영적 진리가 있었다. 신자들이 성경의 감추어진 진리들을 찾기를 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위해 "두드리고 찾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 사실상 오리겐에 의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오리겐의 신플라톤주의적 경향은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그가 성경에 관하여 정말 참된 어떤 점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로 충만한 관상(prayerful contemplation)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을 통찰력을 그들에게 주신다.

>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오리겐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서 영적 의미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건전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신학적 상상을 자극하는 학문적 교재에 불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 실제로 우리는 이 둘이 함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 그것들이 단락에 놓여 있는 문맥, 역사적 세부 사항 등과 같은 것들을 이해할 능력을 향상시킬 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원래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우리에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중세기 동안 내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와 같은 중요한 과학적 해석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도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어떤 형식의 성독, 곧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실행했다.

대체적으로 [렉치오 디비나]는 잘 알려진 네 가지 단계 혹은 행위로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렉치오 디비나, 성독(聖讀)]는 성경을 읽는 [렉치오, 독서(讀書)], 읽은 것의 내용을 고요히 생각하는 [메디타치오, 묵상(默想)], 하나님께 밝히 깨닫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오라치오, 기도(祈禱)], 성령님께서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감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확신을 주시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콘템플라치오, 관상(觀想)]로 이루어져 있었다.[2]

종교 개혁의 시대까지 로마 교회는 모든 종류의 거짓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렉치오 디비나]를 실행했다. 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통찰"은 실제로 어떤 매우 중요한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바르게 과학적 해석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적 해석학이 성경의 건전한 석의적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역자 주: 귀고 2 세(Guigo II)가 1150 년경에 쓴 책 *Scala Claustralium* **수도승들의 계단**에서 렉치오 디바나를 네 단계로 정리했다. 1. 렉치오, 독서(讀書): 띄어 쓰기처럼 붙여 쓰여 있는 본문을 의미에 따라 띄어 읽는 것; 2. 메디타치오, 묵상(默想): 원래 중얼거리는 것,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 3. 오라치오, 기도(祈禱): 하나님께 아뢰는 것; 4. 콘템플라치오, 관상(觀想): (구교 전통에서 중요시하나 신교에서는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326 에 의하면, 관상은 철학 용어로 "일상의 실천적 관심을 이탈하여 순수한 이성 활동에 의하여 예지적인 것을 인식하는 상태" 이다.

개신교 성경 학자들의 이러한 특징은 널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잘 알려진 본보기로서 존 칼빈과 요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존 칼빈을 종교 개혁 초기의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경 해석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법률가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서 그의 훈련은 그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석들 전반에 걸쳐 그가 과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신앙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칼빈은 그의 학개서 주석(*Commentary on Haggai*, part 2)에 다음과 같이 썼다.

>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에 매우 빛나므로 우리는 마치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

칼빈은, 성경의 해석을 고립되고 비인격적인 과학적 행위로 취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에 매우 빛나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락이 암시해 주듯이, 칼빈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힘을 바치고,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을 낮추는 체험이 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초기 미국의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즈(1703-1758)도 성경에 대한 그의 세심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들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에세이 **개인적 이야기**(*Personal Narrative*)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라.

> **내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식이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이 말씀처럼 나에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이며 그러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길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매우 강해서 에드워즈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에드워즈는 계몽 운동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바르게 그는 성경 해석이 매우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드워즈조차도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색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에 대한 매우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시대에 해석학에 대한 신앙적 접근은 학자들의 성경 해석에서 거의 사라졌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로마 카톨릭 해석자들의 모략에 대응하여 과학적 해석학을 추구하였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 학자들은 신앙적 해석학이 그들의 지적 능력과 걸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주의 깊고 합리적인 석의에 거의 모든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이런 접근이 우리가 성경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숙고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명을 구하는 일은 복음주의 학자들로부터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이고 학문적인 해석을 하려고 할 때 과학적 해석학과 신앙적 해석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많은 개신교 해석자들이 과거에 이런 일을 잘 해 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신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과 신앙적인 접근을 결합시킨 신학자들의 역사적인 몇 가지 예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신앙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구적인 성경 해석에 보다 익숙해지면 자주 그들은 신앙적 해석학의 중요성을 놓쳐 버린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과학적 해석학이 매우 지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에 있어서 한때 중요했던 것, 곧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강력하게 변화하는 체험을 잊어버린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 가지 해석학적 과정을 모두 추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신앙적 접근이 우리의 우선 사항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을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을 결정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적 해석학 안에 있는 연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신앙적 해석학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럼 먼저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을 살펴보자.

1. 준비(Preparation)

불행하게도,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런 경험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야고보가 약 4:8 에서 어떻게 말하였는지 들어보라.

(약 4:8 개역개정)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표현은 구약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신실한 예배자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로 "가까이 나아갔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어느 때나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강조를 반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해 주심으로써 보답하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앙적 해석학을 위한 준비는 성화,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포함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상시키는 모든 것은 추구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종류의 준비에는 모두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지적, 행위적, 감정적인 준비라는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나누어 말한다면 준비의 폭에 대한 감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지적인 준비를 통하여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인간, 세상에 관하여 잘못된 개념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 학자들은 학문적 강조에 맞는 비교적 좁은 일련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화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려는 열망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열망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킨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행위적인 준비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신앙적 해석학에 대한 준비에는 반드시 우리의 실패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진지한 열망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감정적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를 추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감정적인 준비에는 지나가는 감정으로부터 하나님, 인간, 및

나머지 피조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감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태도가 포함된다. 성경은 교만, 증오,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을 자주 경고한다. 그러나 겸손, 사랑, 마음의 부드러움 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이런 이유로 신앙적 해석학에 대한 준비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의 문제이고 전인의 문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나 도전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의 성경 이해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고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특히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하는 우리의 능력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지적할 만한 한 가지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성경의 가장 강한 명령에 등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므로 그것을 붙들며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가 충실한 성경 해석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신앙적 해석학에 있어서 두 번째 해석의 과정인 원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2. 연구(Investigation)

신앙적 해석학은 성경의 원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수반한다. 신앙적 연구에서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체험한 것과 그들이 원래의 독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려고 의도했던 것에 비추어 원래의 의미를 살핀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다시 한번 연구의 지적, 행위적, 감정적 차원의 관점에서 말할 것이다.

첫째로, 신앙적 해석학은 지적인 연구, 곧 하나님과 그분의 영감받은 저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신앙적 해석학은 성경의 사실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것이 억측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이 이런 과업을 수행하도록 잘 고안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앙적 해석학에서는 과학적 해석학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는 특정한 지적 질문을 던진다. 이 본문은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본문은 그의 청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가?

둘째로, 신앙적 해석학에서 연구는 성경의 원래 의미의 행위적 차원에도 강조를 두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한다. 이런 이유로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며 그들 자신의 행동과 청중의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체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셋째로, 신앙적 해석학에서 연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원래 의미의 감정적 차원도 끌어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은 자주 이것을 간과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원래의 청중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다. 성경 저자들과 그 청중의 기쁨, 의심, 슬픔, 두려움 등은 도처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미 제시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체험에는 고양된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이 저자들과 그 청중의 감정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앙적 해석학에 있어서 준비와 연구에 관련된 우선 사항을 다루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한 적용과 관련된 우선 사항을 언급할 것이다.

3. 적용(Applic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적용하는 일에 몰두한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필멸할 인간들이 수천 년 전에 쓴 생명력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룬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용의 지적, 행위적, 감정적 차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지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해석의 적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영향을 주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승인하고 향상시키고 교정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러한 교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혜 속으로 훨씬 더 깊이 이끌려 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행위적 차원에서 신앙적 해석의 적용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겸손히 털어놓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해야 할 행동을 확인시키고 향상시키신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차원에서 성경에 대한 신앙적 해석의 적용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에 의해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는 것을 수반한다. 그분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적당한 때에 후회, 비탄, 슬픔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감정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다. 경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개념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감정에 있어서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크루거[Michael J. Kruger] 박사)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면할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는 성경의 적용을 세 가지 부분, 즉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라는 것이다. 지적 추구는 우리가 이 세 영역 중 하나 곧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온 지성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생각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 곧 우리의 감정적 생활, 온종일 우리의 기질 또한 하나님께 중요하다. 정말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감정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중립적인 감정이란 것은 없다.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더불어] "행하는" 측면 또한 하나님께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성경이 우리의 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균형을 제공한다.

V. 결론(CONCLUSION)

성경해석학의 서론을 다룬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용어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이 그것의 엄정성과 논리적 일관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신앙적 해석학이 과학적 해석학과 맞먹는 힘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통찰력과 복을 얻는 길을 열어준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앞으로 있을 강의들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과 신앙적 해석학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새로운 길들을 발견할 것이다.